14-21 (통권 572호) 2014.06.16

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

VIP 리포트

■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

-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부동산 시장

현대경제연구원

발 행 인 : 하 태 형
편집주간 : 한 상 완
편집위원 : 주 원, 백흥기
발 행 처 : 현대경제연구원
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-7
Tel (02)2072-6305 Fax (02)2072-6249
Homepage. http://www.hri.co.kr
인쇄 :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(02)2636-0555

□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□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.
□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(02-2072-6224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■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

: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부동산 시장

Executive Summary ····· i

1.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 ····· 1

2.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부동산 시장 ····· 2

3. 시사점 ····· 13

【HRI 경제 통계】 ····· 15

< 요 약 >

□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부동산 시장

1.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

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대책에도 불구하고, 최근 아파트 거래 침체가 다시 시작되는 등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. 따라서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부동산 시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2.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부동산 시장

(부동산 가격 전망 인식)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**첫째, 추가 하락(39.3%)과 상승(39.1%) 전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.** 2013년 조사에서 추가 하락(50.6%)이 상승(24.6%) 전망에 비해 매우 높았던 것과 대비되어,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 또한 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(78.0%)이 많았다. **둘째,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(45.3%)이 하락전환(17.8%)이나 현수준 유지(36.9%)보다 높았다.** 그러나, 2013년 조사에서 추가 상승 의견이 60.2%로 매우 높았던 것에 비해 상승 의견이 약 15% 정도 많이 약화되었다.

(부동산 취득 인식)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**첫째, 재산 형성과 생활 안전을 위해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3년과 달리 과반 이상(51.6%)으로 증가했다.** 2013년 조사에서 생활이 어려우면 구입에 반대한다는 의견(56.9%)이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(43.1%)보다 높게 나타났었다. **둘째, 무주택자 4명 중 1명(25.2%)은 집 살 여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.** 지역별로는 서울(19.5%)보다 충청권(28.9%), 호남권(28.6%) 등 지방에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 비중이 높았다. **셋째, 향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14.5%로 나타났다.** 주택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는 당장 필요가 없어서(46.9%),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(24.0%), 주택 보유 비용이 많아서(11.9%) 등으로 나타났다. **넷째, 사람들의 주택 구입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(22.2%)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.**

(부동산 정책 인식)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**첫째,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(77.2%)이 많았다.**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없었던 이유로는 경기회복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미흡(43.6%)했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(30.5%)으로 인식하고 있다. **둘째, DTI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.** DTI 폐지는 찬성(46.7%), 반대(53.3%)이며,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찬성(52.3%), 반대(47.7%)였다. **셋째, 임대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 정도(68.9%)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**

3. 시사점

첫째,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불씨가 사그러들기 전에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. **둘째,** 주택구입 의사가 증가하고 있고 잠재수요도 충분하므로 수요 촉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. **셋째,** 전세가격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. **넷째,** DTI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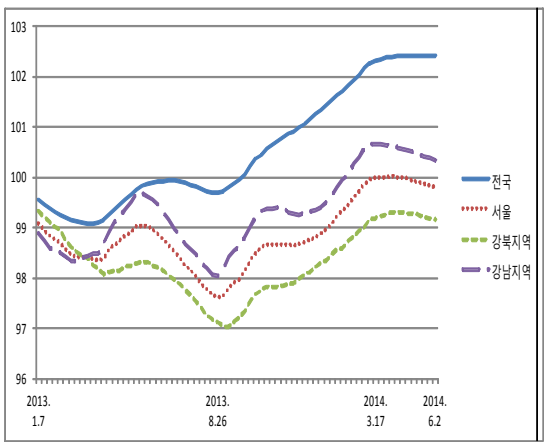
1. 부동산시장의 거래 침체

- 2013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대책에 따라 활성화 가능성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이 최근 다신 침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
  - 상승세를 지속하던 서울 등의 아파트 가격지수가 최근 들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

- 아파트 거래량 역시 부동산시장 대책 발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3월부터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  - 특히,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지수가 최근 들어 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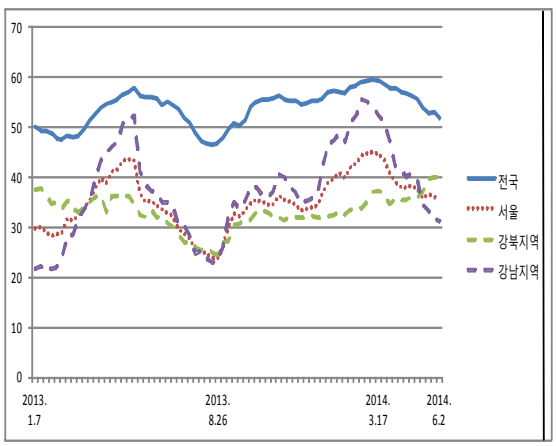
- 따라서 국민들이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주택 시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  - 특히,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했던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와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는지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함

<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화 추이 >



자료 : 한국감정원.
주 : 기준시점 2012.11.26.

< 아파트 매매거래지수 변화 추이 >



자료: 한국감정원.

2.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 있는 부동산 시장[1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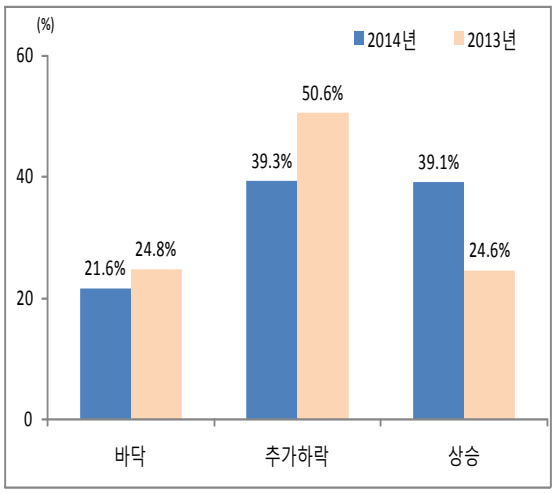
1) 주택 시장 전망

○ 주택 가격에 대한 추가 하락과 상승 전망 비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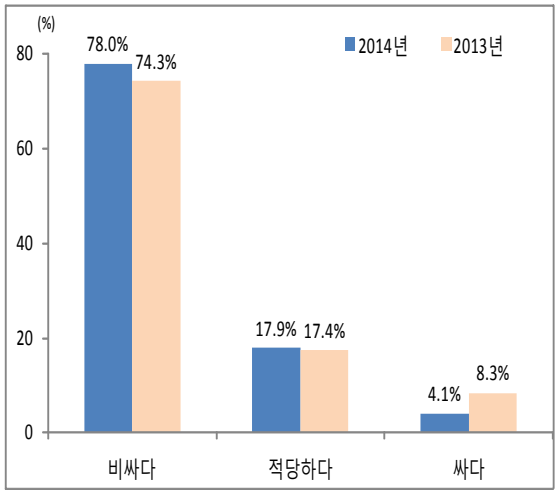
-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추가하락(39.3%)과 상승(39.1%)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, 바닥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21.6%임
  - 2013년 조사[2)] 결과와 비교해 보면, 하락 의견은 50.6%에서 약 10% 정도 줄어든 반면, 상승한다는 의견이 약 15%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판단됨

- 다만, 10명 중 8명 정도가 여전히 현주택 가격을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
  - 2013년 조사 때의 현주택 가격을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의견 74.3%보다 2014년에는 78.0%로 약간 높아짐

<주택 시장 전망>



<현주택 가격에 대한 인식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5월 조사, 2013년 2월 조사.

1) '부동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'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 간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. 조사의 최대 오차 범위는 95%신뢰수준에서 ±3.09%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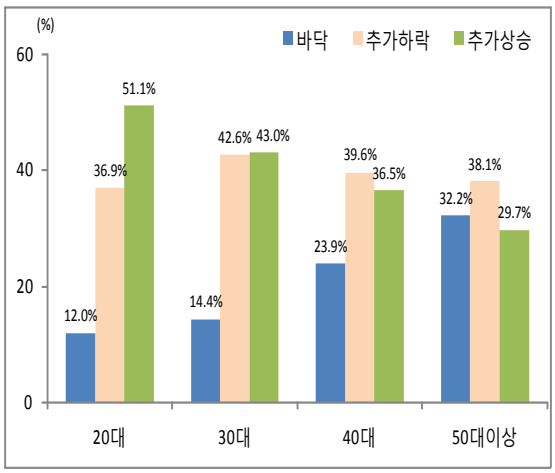
2) 2013년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2013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 간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. 조사의 최대 오차 범위는 95%신뢰수준에서 ±3.09%이었다.

○ 추가 하락 전망은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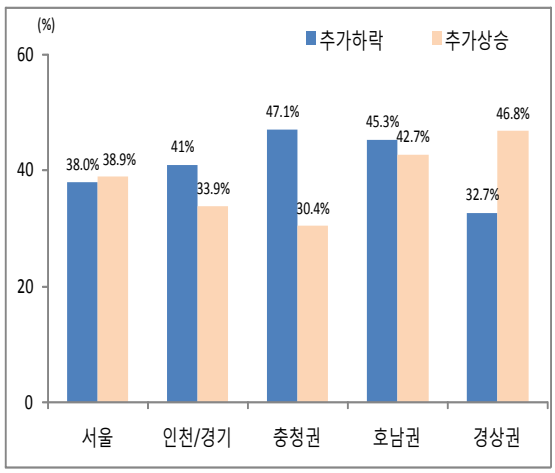
- **(연령별 비교)** 연령별로 살펴보면, 20대는 추가 상승 의견이 50대는 추가 하락 의견이 높음
  - 20대의 경우 현재가 바닥이라는 의견 12.0%, 추가하락할 것이라는 의견 36.9%,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 51.1%임
  - 반면, 50대 이상의 경우 현재가 바닥이라는 의견 32.2%, 추가하락할 것이라는 의견 38.1%,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 29.7%임

- **(지역별 비교)**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추가 하락 의견이 높으나, 경상권은 추가 상승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
  - 인천/경기 지역 41.0%, 충청권 47.1%, 호남권 45.3% 등 많은 지역에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
  - 경상권의 경우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46.8%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 32.7%에 비해 높은 편임
  - 한편 서울의 경우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(38.0%)과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(38.9%)이 비슷함

<주택 시장 전망(연령별)>



<주택 시장 전망(지역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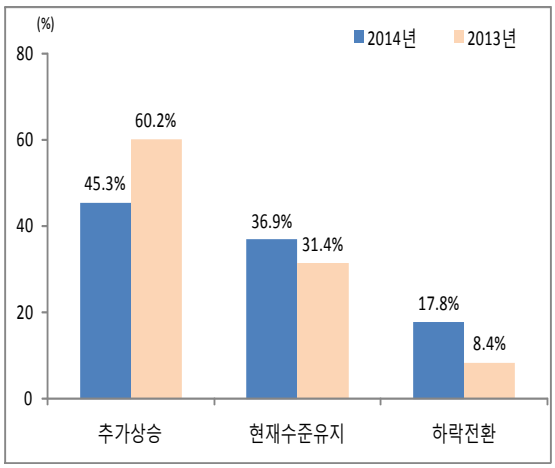


○ 전세 가격의 추가 상승 전망, 2013년에 비해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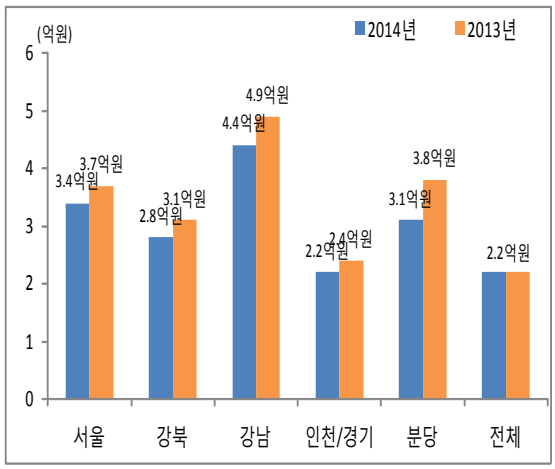
- 전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
  - 하락 반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17.8%이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36.9%인데 비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45.3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  -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,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약 15% 정도 감소하여 최근에 나타난 전세 가격 폭등 현상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됨

-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전용면적인 85m²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2013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균 약 2.2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
  - 지역별로 살펴보면, 서울 지역 전용면적인 85m² 아파트는 평균 3.4억원인 반면, 강남은 4.4억원, 강북은 2.8억으로 편차가 심함
  - 인천/경기 전용면적인 85m² 아파트는 평균 2.4억원인 반면, 분당의 경우는 3.1억원으로 나타났으며, 2013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가격은 낮아진 반면 지방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짐

<전세 가격 전망>



<국민이 생각하는 아파트 적정 가격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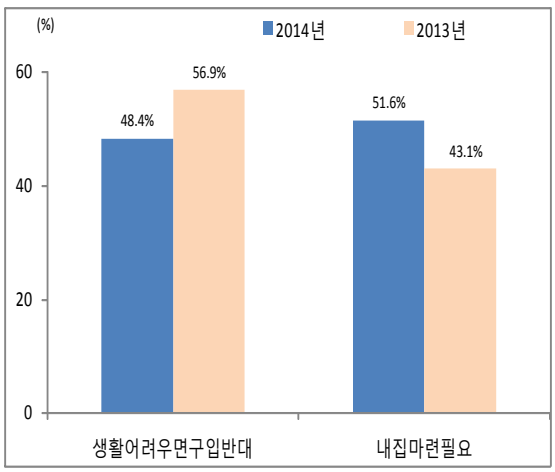
2) 부동산 취득에 관한 인식

○ 생활이 어려우면 주택 구입 반대한다는 의견 과반 이하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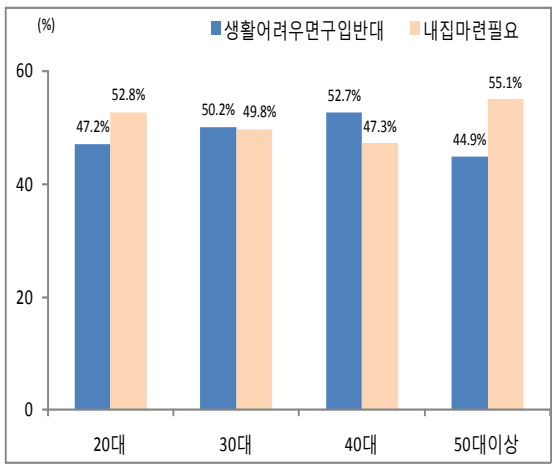
-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워지면서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보다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  - · 주택구입으로 생활이 힘들어진다면 주택구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8.4%인 반면, 재산 형성과 생활 안전을 위해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1.6%로 나타남
  - · 이는 2013년 조사에서 나타난 생활어려우면 구입 반대 의견(56.9%), 내집 마련 의견(43.1%)과 상반된 결과임

- **(연령별 비교)** 생활이 어려워지면서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남
  - · 30대는 50.2%, 40대 이상은 52.7%인 반면, 20대 47.2%, 50대 이상은 44.9%로 나타남
  - · 이는 주택 구입으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추정됨

<주택 구입에 대한 의견>



<주택 구입에 대한 의견(연령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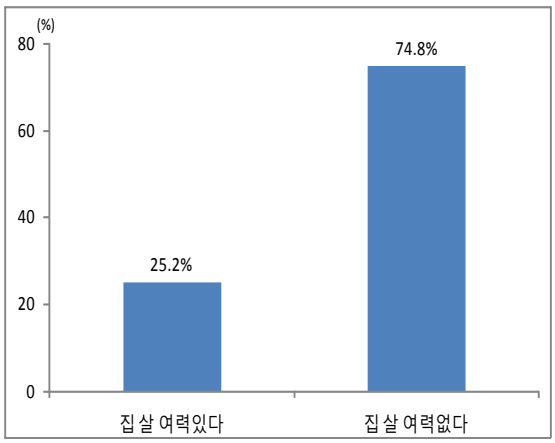
○ 무주택자 중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 25.2%

-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· 현재 보유중인 전세자금 등 금융자산과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주택자 중 25.2%에 이름
  - ·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집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대기 수요자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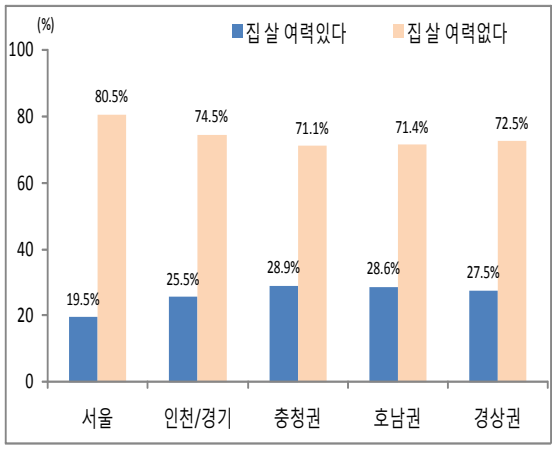
- **(지역별 비교)**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음
  - · 서울은 19.5%, 인천/경기는 25.5%이며, 충청권 28.9%, 호남권 28.6%, 경상권은 27.5%로 나타남

- **(연령별 비교)**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· 20대는 15.2%로 가장 낮고, 30대는 31.1%, 50대 이상은 31.6%로 비슷한 반면, 40대는 40.7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>



<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(지역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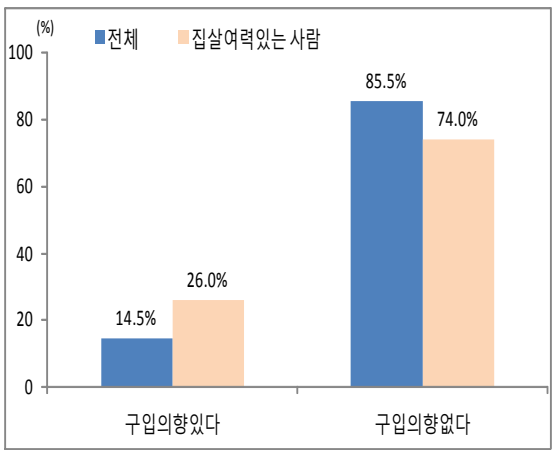
○ 주택 구입 의향이 있는 사람 14.5%

- 향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14.5%로 나타났으며, 집살 여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26.0%가 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
  - · 향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없는 가장 이유는 당장 주택을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(46.9%)임
  - · 그외에 경제적 이유가 없어서 24.0%, 주택 보유 비용이 많아서 11.9%,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9.5%로 나타남
  - · 한편, 전월세 거주비용이 주택 보유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.3%에 불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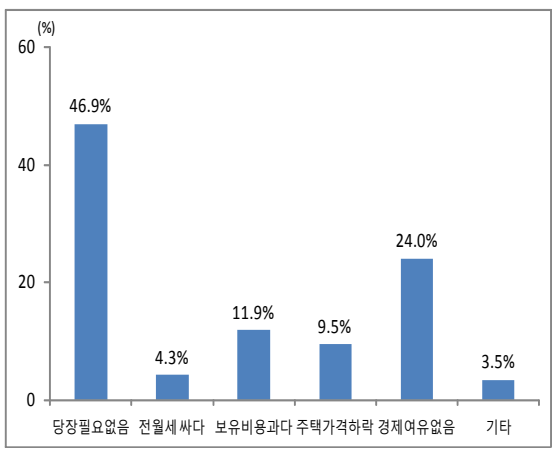
- **(연령별 비교)**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· 20대는 5.1%로 가장 낮고, 30대는 15.6%, 50대 이상은 16.7%로 비슷한 반면, 40대는 19.4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- **(거주형태별 비교)** 주택보유자의 경우 주택미보유자보다 주택 구입 의향이 약간 높음
  - ·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주택 구입 의향이 16.5%인 반면,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2.3%로 나타남

<주택 구입 의향>



<주택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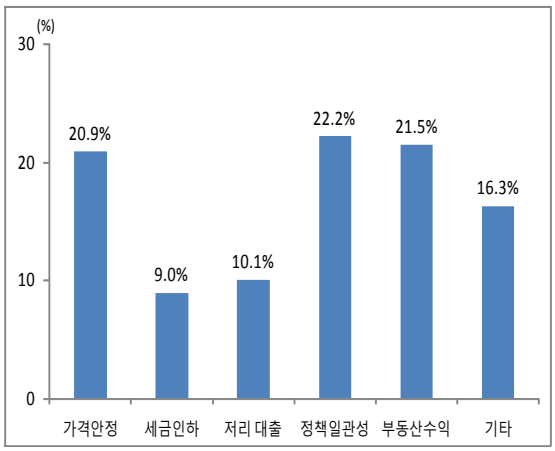


○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주택 취득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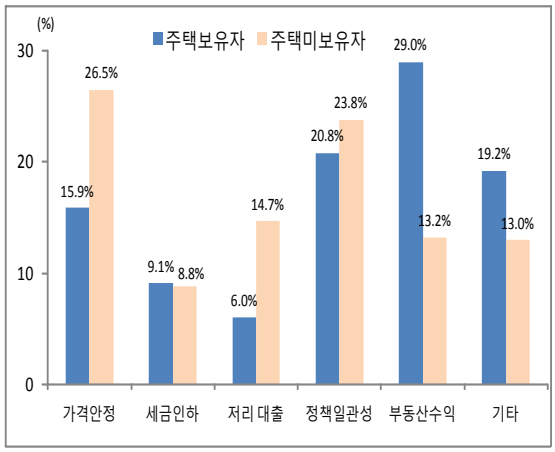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 구입을 고려하기 위한 여건으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높게 선택함
  -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 22.2%, 부동산 투자 수익이 다른 금융자산 수익보다 높을 때 21.5%,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들 때 20.9%로 비슷하게 나타남
  - 그외 저리의 담보대출이 가능할 때라는 의견도 10.1%,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인하될 때는 9.0%임

- **(거주형태별 비교)** 주택미보유자는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들 때, 주택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투자 수익이 다른 금융자산 투자수익보다 높을 때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
  -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격 안정 26.5%, 정책 일관성 유지 23.8%, 저리의 담보 대출 14.7% 순으로 나타남
  -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수익이 날 때 29.0%, 정책 일관성 유지 20.8%, 가격 안정 15.9% 순으로 나타남

<주택 구입 여건>



<주택 구입 여건>



3) 주택 시장 정책 관련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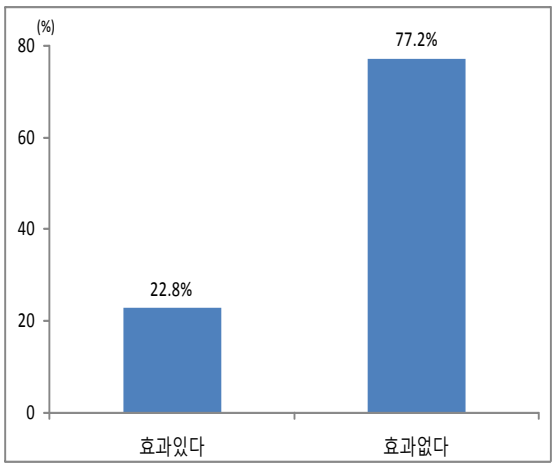
○ 4명중 3명 이상은 기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 없다고 인식

-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기존에 발표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고 인식함
  - ·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효과있다는 의견은 22.8%인 반면, 효과없다는 의견은 77.2%에 이름
  - · 특히,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(80.6%)이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(74.3%) 모두 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낮게 인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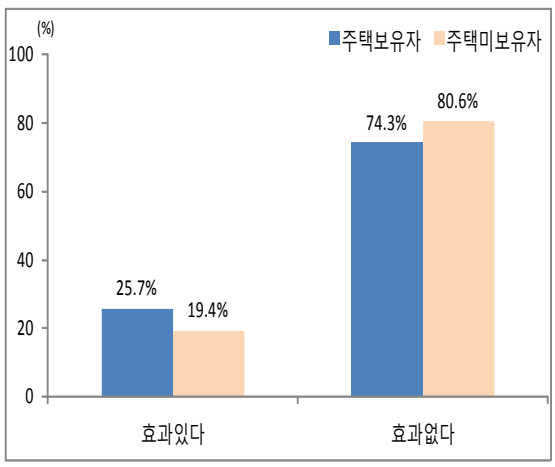
- **(성별 비교)**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에 대해 남자나 여자 모두 효과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
  - ·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의견의 경우 남자나 여자 모두 77.2%로 높게 나타남

- **(연령별 비교)** 50대 이상의 경우 정책 효과성을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인식
  - · 정책 효과성에 대해 40대 17.6%, 30대 19.7%, 20대 20.0%, 50대 이상 30.7% 순으로 나타남

<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>



<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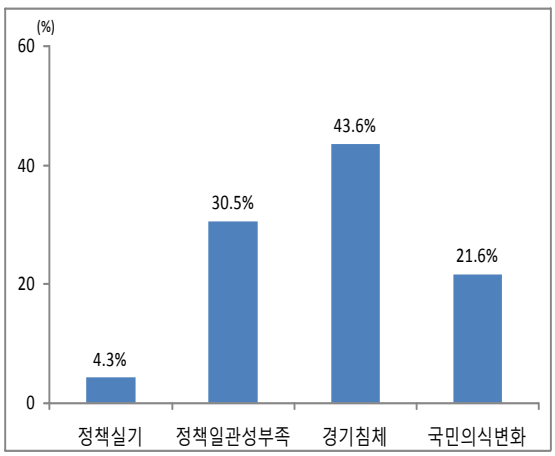
○ 경기 침체가 부동산 정책 효과 반감의 가장 큰 이유

-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의 효과가 없는 이유는 경기 회복 등의 근본 문제 해결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3.6%로 가장 높게 나타남
  - · 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,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추정
  - · 다만,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30.5%로 나타나,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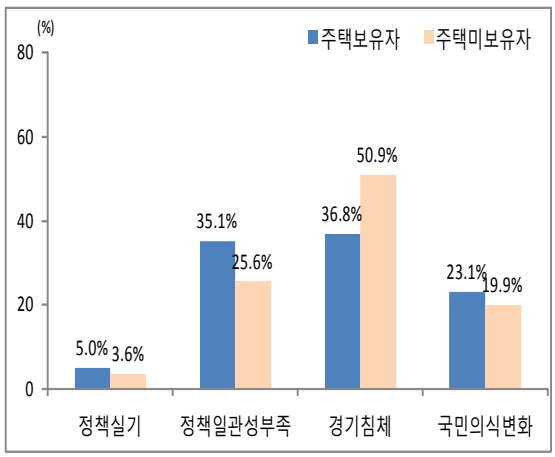
- **(거주형태별 비교)** 주택미보유자는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, 주택보유자의 경우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
  - ·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경기 침체(50.9%)를 압도적으로 높게 선택한 반면,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경기 침체(36.8%)나 정책 일관성 부족(35.1%)를 비슷하게 선택함

- **(연령별 비교)** 50대 이상의 경우 부동산이 더 이상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 인식의 변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음
  - · 50대의 경우 부동산 정책 효과 반감 이유로 국민인식변화(34.8%), 정책일관성 부족(31.3%), 경기침체(28.6%) 등을 선택

<부동산 정책 효과가 없는 이유>



<부동산 정책 효과가 없는 이유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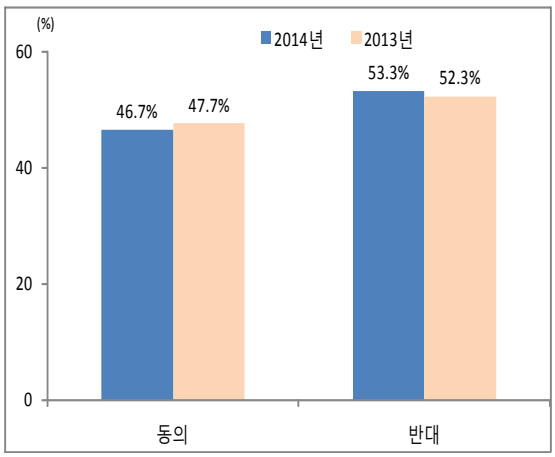
○ DTI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찬성과 반대의견 비슷

- 개별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, DTI 폐지 정책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에 대해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반반 정도로 팽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
  · DTI 폐지 정책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 등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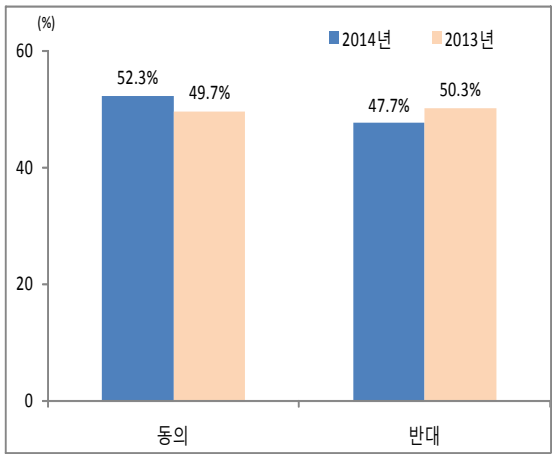
- DTI 폐지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 46.7%, 반대 53.3%로 나타남
  · 2013년 조사에서도 DTI 폐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47.7%, 반대 의견이 52.3%로 반반 정도의 팽팽한 모습을 나타냄

-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52.3%, 반대한다는 의견이 47.7%임
  · 다만, 2013년 조사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(49.7%)로 반대한다는 의견(50.3%)보다 근소한 차이지만 낮았던 반면, 2014년 조사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조금 많아짐

<DTI 폐지 정책>



<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책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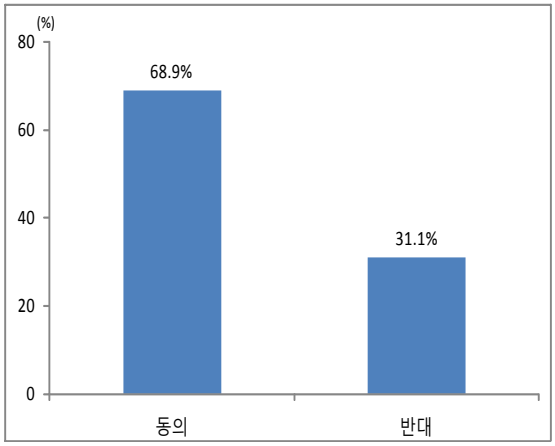
○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 68.9%

- 2014년 2월에 발표된 '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' 중 임대소득 과세안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
  ·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이 68.9%로 나타났는데, 이는 최근 발표된 임대차 관련 정책이 부동산시장 침체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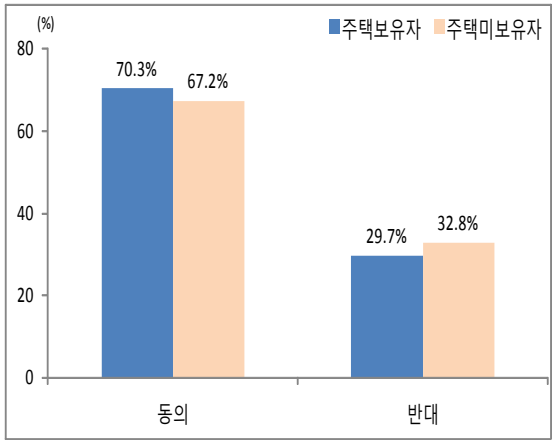
- **(거주형태별 비교)** 주택보유자의 경우 주택미보유자보다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의 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찬성함
  ·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찬성이 67.2%인 반면,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찬성이 70.3%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냄

- **(연령별 비교)** 30대, 40대, 50대 이상 모두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함
  · 20대의 경우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에 대한 찬성이 64.5%로 가장 낮고 30대 70.8%, 40대 69.2%, 50대 이상 70.2%로 비슷하게 나타남

<임대차 관련법 개선 여부>



<임대차 관련법 개선 여부>



3. 시사점

○ 첫째,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불씨가 사그러 들기 전에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

-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, 시장 인식은 아직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의 조속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
  - 부동산 시장은 국민들의 심리에 매우 민감하므로, 정부의 신속한 후속 대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
  -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전망이 불안정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거래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

○ 둘째, 주택구입 의사가 증가하고 있고 잠재수요도 충분하므로 수요 촉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

-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구입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므로, 이에 대한 세부 정책 수립이 필요함
  -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
  -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,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으므로, 이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요 촉진 정책을 제시해야 함

○ 셋째, 전세가격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

- 전세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세 가격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
  -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, 2013년에 비해 전세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국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, 여전히 하락보다는 상승 전망이 많음

· 따라서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라고 전세 가격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

○ **넷째, DTI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**

-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 가장 민감한 DTI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함
  · DTI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도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,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

장후석 연구위원 (2072-6234, chahus@hri.co.kr)

HRI 경제 통계

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

<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>

구 분			2012	2013					2014	
				1/4	2/4	3/4	4/4	연간	1/4	연간(E)
국민계정	경제성장률(%)		2.3	2.1	2.7	3.4	3.7	3.0	3.9	3.8
	민간소비(%)		1.9	1.7	2.1	2.1	2.2	2.0	2.6	2.7
	건설투자(%)		-3.9	1.9	9.8	8.8	5.4	6.7	4.1	2.5
	설비투자(%)		0.1	-12.7	-3.9	1.5	10.9	-1.5	8.0	6.7
대외거래	경상수지(억 $)		508	105	208	238	248	799	151	490
	통관기준	무역수지(억 $)	283	56	144	108	133	441	59	370
		수출(억 $)	5,479	1,353	1,412	1,368	1,464	5,596	1,383	6,067
		증감률(%)	(-1.3)	(0.3)	(0.7)	(2.8)	(4.7)	(2.1)	(2.2)	(8.4)
		수입(억 $)	5,196	1,297	1,268	1,260	1,331	5,156	1,324	5,697
		증감률(%)	(-0.9)	(-2.9)	(-2.8)	(0.3)	(2.5)	(-0.8)	(2.1)	(10.5)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		2.2	1.6	1.2	1.4	1.1	1.3	1.1	2.4
실업률(%)			3.2	3.6	3.1	3.0	2.8	3.1	4.0	3.1
원/달러 환율(평균, 원)			1,127	1,085	1,123	1.111	1,062	1,095	1,069	1,070

주 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